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1호
11월 26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남의성회

■ 문의
301-0153-7296-01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6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교단 제거차 총회 제2회 임원회

북한의 핵 도발 분쇄...한미동맹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철저대비 평등법 제정 막아야

교단 총회(총회장 김경목 목사) 제7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11월 22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에서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을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임형순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경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열 43 말씀을 본문으로 '형제 지켜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교단 임원으로 함께 모여 귀한 일을 이끌어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지켜서 이름 다유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김경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윤기호 회장이 돌아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람령명, 총회장 김경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경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지난 11월 7일 7차 총회장 김경목 목사 취임 감사예배



를 드리고,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3회) 정기총회 개최도어 임원진이 참석할 것 등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백영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순환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안건부의 사항으로 교회주소변경 교회행정변경 보고사항 등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총회 공석 중인 각 국장, 위임장 임원진과 각 교회 사역자 수급이 어려워 각 교회 담임목사 임명에도 소수 교회에서 상정된 목사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미교단(교단연합회) 제33회 전도사 특례, 사역자 신학연구(신학연구원, 목회대학원) 졸업자에게 12월 15일은 해당전도사와 임명장 수여를 드리게 될 예정이다.

또한, 노숙자선교위원회(위원장 이원용 목사) 겨울 난방비 지원, 2023년도 사무예배 및 7차 총회 제2회 임원회(1월 15일) 개최를 예정하고 보고했다. 임원들은 합의기도를 통해 오랫동안 평등을 빙자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자들의 차별을 막아내기 위해, 헌법에 평등을 해치는 북한의 핵 도발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확산 조정을 보이고 있는 독감예방을 하고 철저 코로나19 방역의 재유행을 막고 감염병의 종식을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



“자녀들 교과서 지키자” 국가미래 위해 절규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 촉구 대규모 집회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안”이후 교육과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연방행사가 주일인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로 한 차례 연기된 대다수 참가자들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이 운집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을 대변했다.

이날 집회는 수도권교단총연합회(수경총)와 교육청총합을 비롯한 전국교단협의회(교총협)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개정안을 행정고해하면서 단종 시점에서 논란이 됐던 ‘성경’과 ‘창조수사’라는 용어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넣었지만, 주최 측은 분장적으로 정면행적 역사관과 생명학적 사상은 반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식전 분향사를 시작으로 1부 연합예배 및 기도회, 2부 국민대대, 3부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예배 및 기도회에서 박순우 목사(예자광성교회)가 합창기도를 인도했고, 이후 유인석 목사

(전경교회)가 찬양(전경교회) 대표화장) 등이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기도 순서도 마련됐다.

박순우 목사는 “이들에게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교과서는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 교과서를 사탄의 악사를 따라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막아내야 하는데, 여기에 모든 어른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우리 하나님은 능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눅 19:41-44)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유인석 목사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슬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기 위함”이라며 “민족의 정체를 위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울어야 한다”고 했다.

유 목사는 “교과서를 편향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성도들과 국민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 다”며 “이는 잘못된 교과서로 교육받은 자녀들의 미래가 불행해지고 나라가 잘못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특별기도 순서에서 신장철 목사(전경교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신봉수 목사(신원교회)가 “사탄의 악사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폐기’, 최광희 목사(17개교시도연합대응본부 사무총장)가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악법 폐지”, 원희정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가 “자유민주주의, 안보, 종교자유를 위한 기도”를 각각 인도했다.

특히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과격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차별금지법 폐지에 목소리를 높여 온 이재준 목사가 “한번에 연설로 나서 관심을 끌었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7개의 아이인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였 다’며 ‘남자와 여자 양성 체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반면, 그와 과학적 진리요 지켜져야 하는 질서’라고 했다. 이것을 가만히 이념과 사상으로 무너트리려는 모든 흐름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다. 우리 자녀들이 살길”이라고 했다.

을지부대 수색대대 방문, 장병들 위로 격려

예하성 군선교위원회 강원안보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예하성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우 목사)는 지난 11월 22일(목) 오후 2시에 다시오면서 강원도 태백시를 안락교회 전비하기 위해 열두명으로 구성된 동부

전선 을지부대 수색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부대장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먼 곳까지와

서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전방에서는 막이 어려운 지경에도 해주며 격려해 주신에 감사드리고 전하고 위문봉대에 더 큰 힘을 얻고 수색대대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행할 것을 다짐하고 다시금 깊이 감사드리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박순우 목사는 장병들과 함께 자리에서 샷 6: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정재전, 사정전, 자신의 전장에 승리하여 이세에 다시는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주님만이 철저한 국가군을 확립하여 나라를 사랑 하는 장병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함께한 강원안보지킴이 봉사단(원사, 집사 등)으로 구성된 장병들을 만들어주며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안보지킴이 봉사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방과 해안부대를 찾아가며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조용국 목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비 교할 수 없는 최상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지식과 그 선물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지금도 놀랍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첫째는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활하여 변화된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선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날 모든 군중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행 2:38)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이름 개조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로서 12장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사람이 배우고 노력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구하는 은사들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인간의 행위나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 것 혹은 자아의 공적과 덕행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신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교만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낮추고요 게으르시며 화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선물을 돈을 주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의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본 사도인 바울로에게 돈을 주며 제자되기를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고로 바울로가 바울로”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너의 돈과 함께 팔았지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비뚳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 계도 없고 보기도 없다” 하였습니다. (행 8:18)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신성한 선물을 돈이나 인간의 공로로 지불하여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된 자가 되며 멸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비뚳직한 태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신성한 은사들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셋째, 지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도우심을 받은 은사를 받는 것은 주 안에서 지킬 줄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선물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배워야 할 수 없습니다. 사령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신성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여러분은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자격으로 표현하고, 이 놀랍고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자를 개행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성명서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한다는 자가 성직자라니”

강원도 원주의 한 성공회 신부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대통령 탄 전용기를 은 국민이 염원해서 추락할 바리 마지않는다고 썼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못 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이 글을 쓴 신부는 본체가 되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일기장처럼 쓴 나만의 생각 일화”라고 썼는데 이 다른 사람이 여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부가 성직자라 하더라도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낼 자유는 있다. 그러나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탄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염원한다는 등의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는 심각한 살기(殺氣)가 아닐까.

해당 신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동성당 추모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을 올리고 “나 같은 성당 출입을 금지시키고 두근 두근 귀속 행로가 개조”고 쓰기도 했다고 한다. 아무리 현 정권이 망에 안 들고 제대적인 일과와 관련 과연 여지 성직자의 마비와 기습 앞에서 나올 말인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는지 되묻고 싶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례안정’ (한정일) 정당의에 참 석한 한·일·미 정상회담, 제 정당이 한자어에 모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한미사일 평화와 안보를 핵심질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세 정당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이다.

이런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전용기를 추락하기를 은 국민이 염원해서”는 자주를 어찌 성직자가 할바를 수 있나. 혹여라도 대통령 탄이 MBC 가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때 따른 불만된 살기를 이번 식으로 드러낸 자라니 하라. 그런 전용기에 대한 기자들의 생생한 인종도 없지는 말인가.

우리는 성공회 모신부 다비안(원주)이 주창한 ‘차별금지법’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교회 대부분이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성공회 신부의 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 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끔찍한 혐오와 자주는 해도 되지만 해당 교단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시국집회에서 한 목회자가 대통령 탄을 욕을 퍼붓는 등 혐오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대안교회 주요 교단직 분조전 집회와 관련 연구에 작 수했다. 총회에서 집회 참석 금지 등을 결의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추락시키자는 자주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는 이런 성직자에 대해 서도 목감는 자제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공회 신부의 자주성 글이 선택적 분노전 집회의 침묵이런 적절할 치료가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것이 자주적 정성 작인 시고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성직자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정자인으로 살아가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2022.11.1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탄소중립 실천 심포지엄 개최

한교총, 탄소중립 실천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 모색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이 주최하고 기후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범 목사)가 주관한 '탄소중립 연구논문 발표 심포지엄'이 지난 11월 14일(월) 오후 4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생태계 위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교회 교육 기구위가 대중에 앞장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신앙적 고찰,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발제에 나선 송준근 교수(경원대학교)는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생물 다양성과 삼림 파괴, 토양 산성화, 에너지와 기후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지구과학자인 DG, 나스렛의 말을 인용하여 "지구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인류가 고발정한다면 이성적인 인간으로 구

성된 배심원단은 기소의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생태문제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생태계 위기의 원인은 마르틴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 즉 실재를 정신과 물질, 둘로 보는 이원론이 철학적 배경을 제공했다."라고 지적하고, 기독교의 신론과 창조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은 성경 본래의 세계관이 아니며, 근대 서구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맞도록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임을 밝혔다.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그 비판까지도 받아들여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론과 창조론과 인간론과 지인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잃어버리고 파괴된 하나님의 모퉁이 행상을 되찾아 자연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간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송준근 교수(경원대학교)는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생물 다양성과 삼림 파괴, 토양 산성화, 에너지와 기후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지구과학자인 DG, 나스렛의 말을 인용하여 "지구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인류가 고발정한다면 이성적인 인간으로 구

성서공회, 우크라이나 성경지원 기증식

대구평강교회, 성서공회에 후원금 전달



대구평강교회(이소영 목사)는 지난 11월 9일 우크라이나 성경 지원을 위한 후원금 약 2천 1백여 만 원을 전달하는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다.

대구평강교회 이소영牧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

과 국민들을 공경하고 싶어서 평화종교들과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공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최고의 공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기도를 밝혔다.

공회 이소영 총무는 "이번에 대구평강교회의 후원으로 보내는 성경이 우크라이나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대구평강교회 이소영 목사님, 성서위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며 감사와 비움을 전했다.

사랑의 독거 어르신 효도잔치

월드뷰티한즈, 사랑의 마음 전해

죽령총회와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한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뷰티헬스사이언스)와 교수가 주최하고 대동동교회·종교협의회(회장 장현일 신성명나루교회)와 해동마을이 협력하여 지난 11월 10일 남해물수에서 죽령총회와 독거어르신 초청 '사랑의 독거 어르신 효도잔치'를 갖고 조성으로 준비한 음식과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사)월드뷰티한즈 회장 최에스터 교수는 "이번 사랑의 효도잔치는 평소 도시가 어려운 읍을 찾아가 드시고 기를 정취기 위한 공원에서 모처럼 휴식을 갖도록 모셔와서 기쁘게 외출과 우정을 아끼며 살아오셨을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동동교회·종교협의회 회장 장현일 목사는 "외출과 함께하시는 독거 어르신들께 사랑의 효도잔치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대



저를 주신 월드뷰티한즈에 감사드리며 복자 사귀어달라 발과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대동동 교회와 이들을 섬기고자 늘 애써주시는 장현일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월드뷰티한즈(WBH)는 행정안전부 별

인으로 노숙자와 쪽방촌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과 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리는 재능기부를 전문 소셜(사회)서비스 기업이며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봉사하고 있다.

백석총회, 45주년 대장정 '기도'로 시작

매일 첫째 주 목요일, 권역별 '기도성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정종현 목사)가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대장정을 '기도'로 시작했다. 백석총회는 45주년 기념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내년 12월까지

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총회본부에서 기도성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를 위한 기도성회'에는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두 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

기도성령운동본부장 백대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성회는 제2부총회장 이규환 목사가 "총회 이전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불을 내려 영성이 주어진다는 교회를 개구하는 역사가 백석총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기도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성회를 전한 제1부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 백석인들에게 회개 불이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육제도, 주거문제, 아동돌봄 대책마련 시급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포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경철, 이하 총대본)는 지난 11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하고 초저출산국가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을 출산절벽국가에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있는 자리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가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백종현 이사장(한나라당은 가정운동본부)은 20여 년 동안 가정문제를 발파한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부모교육을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아동돌봄 정책을 민주정교회를 중심으로 입법하는 동시에 부모정서교육을 제도화하여 정서성숙 5기년 계획을 실현할 때 대한민국은 저출산에서 다출산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장현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는 아동이 행복한 돌봄정책을 위해 국가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문제는 국가의 존재론제로 국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야 할 문제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제도와 주거문제, 아동돌봄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해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평택대학교 이상두 교수가 '아동돌봄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영원 회장이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돌봄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이 위원장이 주최하고 총대본이 주관하여 열렸다. 총대본 김경철 본부장이 개회사를, 이재이 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CTS, '2022 대한민국 성탄 축제 성탄 트리 점등식'

지난 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

'2022 대한민국 성탄 축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지난 11월 19일 오후 6시에 열렸다.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사랑의교회와 후원한 이번 성탄 트리 점등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과 이월한 장사 시간 등 우도와 희망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40여 명의 내외빈과 함께 열렸다. 성탄 트리 점등식은 높이 10m, 폭 6m의 성탄 트리 점등식에 앞서 돌리 채워 오아시스 등의 오프닝 연주가 시작됐다. 곧 이어 점등식이 가동되어 울리와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다.

점등인사에는 CTS김경철 회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대통령실 강승구 시민사회수석,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중무실장, 국회의원 이재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국영의 함 및 윤영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이 참석해 의문, 주한영국대사 그레이엄 벨스 정지정(사단) 등 관계인사와 한국교회총연합회 유영모 대표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준장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권순우 총회장 등이 참석해 성탄 트리 점등식의 불을 밝혔다. 이철 감독회장(CTS공동대표이사)은 성탄

에서 "모든 생명의 올바른 행방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시대 방황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행방과 목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성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축사를 전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원상대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매년 시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오는 성탄 트리가 올해는 깊은 이쁨과 슬픔이 담긴 우리 시대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한 줄의 빛이 되길 바라며, 어둠이 떠나고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제23차 신바람 목회세미나 개최

존 웨슬리의 설교는 늘 성경중심의 설교

비전교회(회장)는 문명문화부장 김진호 목사가 주관한 제23차 신바람 목회세미나가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소재 성은교회(담임 이성민 목사)에서 열렸다. 목회자를 위한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문명문화부장 김진호 감독은 인사말을 통해 "지도자가 한을 내야 고교도 부흥할 수 있고 비전교회(회장)가 바로 고교도 부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라니티 아카데미(이사장 장윤제 목사)는 "존 웨슬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철저하게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성경중심의 설교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어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성경으로 자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계시했다. 설교자의 사명은 기쁨의 계시의 책을 회개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라며, "설교는 본질이나 스킬이 아니다. 기쁨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사도들에게 붙여주는 강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윤제 목사, '트리니티 아카데미' 설립

전 세계 명문대학 진학에 정경다리 역할 할 것

교회 대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한국교회 대안목회를 제시한 (사)한국복음화목회협의회 장윤제 목사가 이번에는 한국교회 대안목회 설립을 위해 '트리니티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이와 관련, 트라니티 아카데미(이사장 장윤제 목사)는 "존 웨슬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철저하게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성경중심의 설교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목사는 유지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OSSD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제학

교다. OSSD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인정하는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홍콩 등 영어권 국가들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증을 받는 고등학교 과정이다. 이 혜택을 그대로 트리니티 아카데미에 제공하여 짧은 기간과 모든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없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미국과 유럽, 호주, 캐나다, 한국 등 세계 각국의 명문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생명의 말씀



김인춘 목사

· 예수교대한남녀의성회 전임총회장
· 청신교회 담임

하스기아가 왕이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골짜기 못하고 그들의 법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 아들여가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스기아는 25살에 왕에 오르면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이었던 앗수르의 동맹을 파기합니다.

본문 18장 4절을 보면 앗수르 때문에 들 어온 선물을 주상들을 하스기아는 다 없애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스기아가 앗수르에서 살기는 우상들을 없애버린 것들도 굉장 한 일이지만 더 굉장한 일은 아소벨 백성 들이 800년 동안 놋쟁을 만들어 살던 것이

없었다. 전통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공에서 원망하던 아소벨 백성들이 불뿔을 통해서 불뿔이 불려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놋쟁을 만들어서 그걸 바게 함으로서 백성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놋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소벨 백성들은 놋쟁 우 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 니다.

하스기아가 놋쟁 우상을 없애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8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고 있었던 우상을 하루아침에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인데, 놋쟁제단 그걸 건드리면 지금까지 섬겼던 많은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왕권 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노 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왕도 끔찍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스기아는 백 성들이 보도록 야기된 놋쟁까지 다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 습니다. 하스기아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교 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장 2절을 보면 하스기아의 외조 모가 스가랴란 말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지자 그러나 아비엘 때부터 하스기아는 철 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 격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스 기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것을 깨닫게 하고 하스기아는 마음을 열어 놓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스기아는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왕이 되면 나라를 어떻 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열어 주셔서 앗수르에 쫓겨갈 때 면서 앗수르가 살기는 아세라 우상을 삼고 그 놋쟁을 모시고 아세라는 안 되겠다. 그 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는 결국 왕이 된 이후 결단하고 다짐한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합 니다.

하나님께서 하스기아에게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고 복 받은 나라로 만들어 주 시기 위해서 제정만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놋쟁과 잘못된 우상을 하스기아가 통해 서 깨닫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 지고 있었던 모든 악행들, 하나님 앞에 우 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평소 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성

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의 생사복락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놋쟁을 쳐다 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세심한 따라 갔구나.” 바로 그 런 깨닫기의 은혜를 통해서 아들을 거둔지 잠깐도 아들을 거둔지 형통한 주님의 백성 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스기아가 앗수르의 동맹을 파기하 니 앗수르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결국 18500명의 장아부터 앗수르의 최정예 부 대가 에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에루살렘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8500을 다 처리하고 정리하십니다.

사방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 면서 나를 부순다고 하기를 바라보면 서 마음을 통해 나를 깨뜨리면 하나님께선 더 단정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가 부수진다. 그랬 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수졌다가 내일 다시 살아나는 그 아리 매달린 줄이 나 하나님을 그 줄에 얽힌 사도로 사용하신 것 입니다.

포도도 으깨질 때 포도주가 나오고 밀도

다 부수져야 거기서 따끈따끈한 우동이 나 오는 것처럼 하스기아의 개혁 아소벨의 모든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을 깨는 것처럼 우 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깨뜨리고 부수 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 습니다. 가말리엘 회교의 명문 학부의 졸업 생이었습니다. 귀족가문이고 머리도 똑똑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국 회의원이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다 부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쓰러 야 합니다. 내 고집, 내 교만, 부패, 부패야 할 니다. 올라가고 싶은 내 명예부터 쓰러야 합 니다. 부서뜨리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사방하는 여러분, 말씀의 하스기아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고 앗수르의 우상 과 아소벨의 놋쟁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이 살아하시는 모든 우상들 죄의 모습들을 왕이 있게 깨뜨려 버리도록 하나님께 정한 받는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정

한정총 대표회장에 정성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정총) 대표회장 에 선임 대표회장에 정성영 목사(합동개 혁 총회장, 상임회장 에 전함 목사)고신 증 경회장이 선임되었다. 한정총은 지난 11월 18일(금)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 및 상임회 장을 만장일치로 추대 및 선출했다.

한교연 김정김치 14톤 기부



한국교회연 협대 표 송대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11월 17일(목)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노숙자전 식센터(사)를 찾은 김 구에서 “2022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 제”를 열고, 김정 김치 약 14000kg을 볼우 이웃과 사회복지기관 40곳에 전달했다. 한교연은 사회 소외된 이웃 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와 그리스도의 사 랑을 실천하는 사업에 힘을 보탤다.

한대북 북한선교 주재 선교포럼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에서 북한선 교를 주제로 사랑선 교포럼이 열렸다. 본 포럼은 전 세계 선교 현장의 생생한 정보 습득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요를 알고, 대학이 가진 각종 전공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동 대학교 사랑선교포럼은 오는 12월 6일 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홍유미 센터장, 복지차질상 수상



발달장애인의사 장 홍정길 목사는 재 단이 운영하는 시청각 장애인지원센터인 헬 렌클리센터의 홍유미 (65) 센터장이 최근 ‘제3회 아산상’에서 복지실현상을 수상 했다(지난 11월 18일(금) 밝혔다). 아산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아산상’은 봉사자나눔,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 체를 선정해 1989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교사는 학생의 주군(主君)도 아니고 초월적 존재도 아니다

최근 제주의 모 중학교에서는 일부 교 사들이 자신들이 교육을 할 교육과정, 교육 내용을 만들어 편성할 것이라며 임명문을 내었다.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임명에서 학 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결단이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성 소수자 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도 차별하지 않 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명백히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교육을 학생 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누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 자들을 차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각 자지체에는 죄บา 교육감들이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조례’가 시범하게 살아 있는데, 이에 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용기는 교사 가 있다 말인가?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 뿐

하는가? 동성애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동성애가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선동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릇된 세상을 만 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교육을 반대 하는 학부모들을 지칭하여 편향적이고, 일 방적인이라는 불명백함을 내치면서까지 이 것들을 ‘교육권’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저들 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부모로, 학부모들에게 도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교육 기본법 제33조) 그런데 교사들이 학생들에 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될 잘못된 내용들 을 강제적으로 가르치려 할 때, 학부모들은 당연히 정당한(正當)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교사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022개정 교육과 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

면, 지금 노출된 내용들이 통과되면 동성결 혼과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세상을 말하 고, 대한민국 정정보장이 무기한 세상을 말하 고, 정당한 사유(사유)가 부당한 세상으로 되는 신의 표현 등으로 자라는 세대에 게 ‘학교 내 문화해방’을 만들려고 한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양쪽적이고 학생들 의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양식(양식)을 가진다면, 학부모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자 선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학부모들의 정당한 의견을 교권침해로만 몰아간단 말인가?

지금 이들은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아수 에 맞춰, 국가교육위원회를 앞세우려는 것 은 아닌가? 모든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 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 범위 안에

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되는 것이다. 교사들 이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사회교육’은 일방적, 편향적, 파당적, 정치적, 이념적,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사 회 교육은 학생들에게 공동한 토론의 기회, 학생들의 이해와 결집이 따르도록 교사들 은 안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일방적인 교육을 앞세워서 행하겠다는 입 장은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고 본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교사보다 무한정의 권리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교사라면 저지자,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나의 자식 이라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 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켰을 때, 끔찍한 회 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제주도의 모 중학 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특정 이념에 경도

(傾倒)되고, 그런 주조에 속한 교사들은 자 신들의 행위가 국가(國家)의 자선(慈善)을 그 들의 미래를 함부로 훔치는 ‘범죄행 위’가 아니기를 상(上)해 보아야 한다.

교사들은 전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월 급을 받는 공직자이다. 그런데도 국가와 국 민보다는 자신들의 왜곡된 지식과 편향된 사상에 치우쳐, 학생들을 ‘문화해방’의 회 생물로 삼는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성립 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밭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한다. 자신이 받은 만큼 그 역량을 상 대방에게 혹은 공적 영역에 돌려주어야 한 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매일농산물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3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백내장, 금강산에 탁월(경태대연구소)
2)물리노보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소)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강산에 탁월(경태대연구소)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
3)타식물린: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간지식 척추염(줄기)를 풀어주 탁월(전북대연구소)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소)
5)사포린: 면역력 증가
6)칼슘: 홍화씨의 24배, 열치의 9배, 우유의 50배, 김의 343배, 멸치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호서대연구소)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는 본 발표)
7)식이섬유: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했을 때(호서대연구소)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개선
8)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물성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물성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소)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적임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연구실: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연구실: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평화의 섬 제주를 동성애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동성애퀴어반대 제주도민연합 20개 기관 동성애퀴어행사 반대 집회 개최



제주지역 동상에 쿨
러 반대 도민대회 준비위
회회(위원장 박병해 목
사, 상임총무 김전수 목
사)는 코로나로 인해 그
동안 중단되었던 쿨러

행사가 10월 22일(토) 오전11시 제주시 신산
공원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제주도가독교단
연합회 주최로 이에 반대하기 위한 행사
장 바로 옆 문예회관 정문 앞에서 동성에 귀
어번대 도민대회를 개최하고 평화의 섬 제
주를 동성으로부터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반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먼저 제 주도가 제2의 소돔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여 찬양과 함께 동성애위행사 반대구호가 이어졌다.

또한 탈동성애자인 박진권 선교사의 동성애의 패해에 대한 특강을 통해 동성애는 절대로 유전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 결단

과 의지로서 회복할 수 있음을 간증했고, 사
물놀이 팀과 양악나발 팀을 선두로 제주
청 앞까지 동상여귀여행사 반대를 위한 가
두 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제주도 도민들에게
평화의 섬 제주도가 더 이상 영적으로 혼탁
한 섬이 되지 않도록 지켜 줄 것을 강력히 호
소했다.



제주교도소 재소자들과 추수감사예배 드려

제주기독교단협, 특식 제공...성경필사노트 등 증정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부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11월 17일(목) 오후 1시, 오후 3시 2회에 걸쳐 제주도소에서 남·여 재소자들과 함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 인도와 사랑하심에 감사할 뵈었다.

제주교도소 교정위원장들과 함께한 이날 예배에서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들은 재소자들에게 비록 영가(刑罰)의 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행복의 삶
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다.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는 700여 명의 재소자 전원에게 특식을 선물로 전했으며 성경필사노트와 찬양반주용 디지털 피아노도 증정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 다짐

경기남지방화

경기남지교회(회장 박흥열 목사)는 지난 11월 15일(화) 순수생원교회(담임 이광우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월례회에 앞서 드린 이날 예배는 김은숙 목사(부흥교회)의 찬송 인도에 이어 김진현 목사(비전교회)의 시화로 시작해 김진태 목사(서한열매교회)의 기도

배길전 목사(천주교목회)의 성경강독, 사도
중간찬의은혜로문 특송 후에 지병으로 서거강신
홍 목사(주사랑교회)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강牧사는 창 3:8-13 말씀을 본문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큰 은혜임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파
를 찾으셨지만 그가 나처럼 못한 것은 죄 때문
이다. 죄인의 특성은 못한 것이요 두려

위하는 것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다. 다윗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다가 큰징계를 받았던 것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징계의 자리에 있습니까?”를 돌아보고, 우리 자
 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
 님 앞에 정진하게 고백하고, 모란 회개하는
 자가 되어, 안저라도 하나님께서 찾는다면
 ‘예, 내가 여기 있다’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되기를 기도’고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병든자 치료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 후, 김진현 목사의 헌금기도 및 광고에 이어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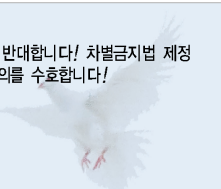
이어 11월 월례회를 통해 안간차리 등을 은혜롭게 마치고 지병화와 김기인 목사가 준비한 대보감을 선물로 전하고, 오찬을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모양사무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홈페이지 : www.uct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170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2 나길 8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을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할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은사인민이 되었고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약성)	3년 6학기 (140 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년 남녀 2. 소의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생활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구약성)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동)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장기록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장인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개학일: 2023.08.9
 개학연락: 국민은행 061737-04-006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2 나길 8
 (예비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성령 충만: 성사 임종기록 부여
- ② 출석률 충족: 학점 인정 기록 부여
- ③ 기타 신생활 사명: 교무처를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졸업예배



2019학년도 졸업식광경

합력투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사이버비전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2022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
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 **참석대상:** 사이버신학연구원 · 사이버목회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낮 12시 30분까지
안양성전 1층으로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기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총회목회대학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

괴산의 명소 산막이옛길 등 일대 걸으며 심신 단련



김병목 목사
예학선 총회장
괴산순복음교회 담임

스포츠선교위원회 걷기동우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

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부회장 정영진 목사) 회원들은 지난 11월 8일(화)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도 송평리 소재 괴산

분북음교화(담임 기호선 목사)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괴산의 숲속 자연의 보고라 불리는 괴산의 명소 산막이옛길 등 일대를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먼저 총회장 김병목 목사님과 전임총회장 김용덕 목사님을 비롯 동우회 회원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전임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복 17:11-19 말씀을 본문으로 '돌이와 감사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령의 자유를 주신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에 감사하고, 기도 에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좌익을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아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은 어려움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보듬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촉구했다.

주제별 기도시간에는 정영진 목사가 '교단을 위하여' 최영선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원들은 2부 행사로 정제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전을 함께한 뒤 산막이옛길 일대를 걸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람 나눌의 시간을 갖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제5회 예상총연, 제24회 예상연 정기총회 개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종교다원주의·이단 배격
온 땅에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다짐



이권웅 목사
사대한국교도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사대한국교도회 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웅 목사)는 지난 11월 18일(금) 오전 11시 여의도 회관 2층 루이지안나에서 제5회 예상총연, 제24회 예상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에 이광웅 목사 재선임을 만

정일제로 결의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한 회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광웅 목사 재선임을 만

출발하는 (사)예상총연은 위해 통상기도함으로 시작하여 지도위원 이시갑 목사의 대표기도, 예상서를 총회 총무 김준태 목사의 성경봉독, KTV 소울라이프 솔리스트 한보경, 예상 합동가회 3년숙 목사, 국악전양 구순연 선교사, 예상합동 전국연합 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상임회장 안병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마 9:14-17 말씀을 본문으로 '날은 가족세대와 세대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과거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켜서 개혁의 신앙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며, 한국교회와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돌아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예상총연이 이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분 예영수 목사, 김기형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특별기도로 '국가와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국



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 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WCC와 이단 배격'을 위해' (사)예상총연 회합과 성령충만을 위해' 김병선 목사, 지광식 목사, 이후현 목사, 오상희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예상합동 전국연합 총회 임원전 전도시의 헌금전안, 예상총연 지도위원 김순중 목사의 헌경기도, 대표회장 이광웅 목사의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이광웅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채의 정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때

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에 비례해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예상총연이 앞장서서 바른 믿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충만하여서 온 땅에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될 것을 촉구했다.

예상 합동부수 총회장 권혁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대표회장 이광웅 목사의 인도로 총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선출에서는 한복에 의거 예상총연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이광웅 목사의 대표

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아울러 이광웅 목사는 코로나19를 무기산인 한국교회에 무너뜨리려는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다시 성령의 불꽃을 여신들 이 땅에 구현해 내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일부 이합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는 사예상총연 대표자 이광웅 목사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법원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안건을 도왔다. 활발한 연합활동에 매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2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강사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담임
예학선 전임총회장
목회사범학교 학원장

강사



김병목 목사
예학선 목회신학교 학장
순복음대신학교 담임
광주신학교 전임총회장

강사



김병목 목사
예학선 부산신학교 학장
부산신학교 담임
순복음대신학교 학원장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장소

산청한방가족호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 055-972-7000

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학장 정기영 목사

후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지방회

6면에서 이어짐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직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자살하게 되면 조사를 하는 감사원에 대해 "대체 무대하"라고 하였다. 불매권을 드나들면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 이윤배이며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다. 대체 무대하라고 거부하는 태도는 국민 위에 왕이나 황제처럼 군림하는 군주의 태도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을곡 사업과 외환 위기 전으로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고, 서면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미웠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에 응하지 않자는 본인 자유다. 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불타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다.

8. 윤석열 정부는 새해명무인 파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반체제성을 세우기 한다.

감사원은 그 이래로 세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이 세가 월복을 시도한 것임이 단정하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는, 이 세의 표류, 피력, '월복 물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관련 인물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한 회색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를 발탁자로 문 국가해당 공무원이 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치다. 전직 대통령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에 감응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한 일이 있으면 의당 법이 방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이러한 앞으로 후임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하지 않고 발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정권의 직책을 청산하고 합법과 법률을 지키고 법치를 확립해주시기 바란다.

2022년 11월 14일

실명을 끄는 나비동

“생명나눔, 전국 대학가가 나섰다”

전국 대학교에서 5,884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한사망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석 목사, 이하 본부)가 올해 전국 30개 대학에서 총 5,884명의 학생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20대가 생명의나눔 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기기증 캠페인은 대학별 학생들의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각 대학의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본부와 함께 장기기증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섰다.

특히 교우들을 대상으로 OX 퀴즈를 진행하며 장기기증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많은 대학생이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올해 가장 많은 대학생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를 이끌며 생명의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곳은 한국대학교 학생으로 나타났다. 6월 21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총정산도 공주시 열린 '2022 한국대학교(신화) 여름수련회'에서는 642명의 기독교 청년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해 올해 본부가 진행한 장기기증 캠페인 중 최대 등록자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강릉원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구강대학교, 대성대학교, 대구불교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사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

성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원대학교, 아주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을지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기독교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중부대학교, 장원대학교, 장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한광대학교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약속에 함께하며 대학가 중심의 장기기증 운동을 이끌었다.

한교총, 건교연합회

새희망교화센터 한기문과 MOU 체결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가 11월 18일(금) 오후 3시 사무실에서 새 세의 전분 단체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교총이 MOU를 체결한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이하 건교연합회), 사단법인 새희망교화센터(이하 새희망센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이하 한기문)로, 교계에서 선교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 사역단체다.

이날 협약은 분회 선교협력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표 회담회의 결의로 진행되었는데, 분회에서는 신명사 박영수 목사의 건교연합회에서는 이영우 사무총장, 새희망센터에서는 김성기 이사장이, 한기문에서는 정경우 사무총장 참석해 서명했다.

건교연합회는 대한민국의 군복무 교단을 주축으로 조직된 단체로 1972년부터 군교신 선교지원 동원 운동의 시행을 하고 있는 단체이며, 새희망센터는 2013년 교도신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음세대와 탈북자 지원활동을 관심을 갖고 교정선교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단체이며, 한기문은 2014년 설립되어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사업을 펴면서 기독교 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과 탐방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다.

한교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연구와 협력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과 상호 인력 및 프로그램 정보 교류와 자료 공유 등에 관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교총과의 협력관계는 이번 협약으로 총 30개의 전문단체가 되었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을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한 영혼의 소중함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전도의 사명, 그것은 어느 특정한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할 수도 없고 모두 다 아쉽다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박영수 목사의 전도의 열심과 열정을 지켜 보아도 바로 사는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그는 일찍부터(신학대학교 신학부 때) 인기 없는 전도학 강사가 인위 수 부족으로 폐강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 강자의 폐강되지 않도록 수업을 함께 할 동료들을 적극 찾아 나서서 부족한 인원을 채워 그 강의를 살려낸 선배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와 함께 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옷을 다 벗고 들어간 찜질방에 있던 낯선 사람에게 교하다 나니지 묻고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연실 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믿을었는지! 미처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초대교회 시대 활동했던 사도바울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예게 손을 뻗어 상대의 마음에 안수하는 장면은 그의

단대한 믿음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가족세전도를 장려해서 전도할 때 그 장사가 아파트가 됐는지 갈바리가 됐는지 미용실이 됐는지 또 주·정지중인 차량이나 오토바이 합치면도 단번에 전도합니다.

혹은 비가 내리는 불발된 날밤에도 여전히 우산 속에서 전도하는 분을 보여주며 많은 전도자를 양성하는 전도강화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만 안에 영감의도를 하고 가족상황과 주·소 성령, 전도원호까지 받아내는 능력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평생 전도자로 살아온 그만이 지닌 노하우요, 성령의 능력이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가족세전도는 주께에 널리 알려져 많은 초청을 받아 어디든지 달려가는데 대부분 열악한 교회들 전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자비함으로 활기차게 전개 해온 전도사역이 벌써 43개교입니다. 교회마다 능력 전도자를 세우는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의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3년 동안 코로나사태 가운데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도사역을 감당하니 풍족한 교우들이 '코로나시대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코비행전 능력전도다' 라고 말합니다. 문화선교TV방송 매체를 통해 많은 전도 사역자들을 발굴해 전도사역을 펼쳐 나가는 모습도 하느님이 함께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듯이, 그와 만나는 지름길로 살리는 생명의사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대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주셔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하우!

천구 이효상 교수

동명성: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대모총회
문화선교TV방송총대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을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692-1691, 010)3730-2573

월드비전, “식량 위기 해결되기를”

G20 참여하는 한국 대표단에 정책제안문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17회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한국정부 대표단에 정책제안문을 전달했다.

월드비전은 전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정책제안문을 통해 식량 위기 식량위기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크게 2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마터(Mater) 선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G20은 2030년까지 굶주리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제로헝거(ZeroHunger) 달성을 목표로 자각발과 다자 및 양자 차원의 협력 강화를 약속을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68만 명이 기근의 위험에 놓여있고 식량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월드비전은 G20 정상들이 마터 선언에 담긴 약속

들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목표 수립 및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식량위기 대응의 위기로 인식하고,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아는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교육에도 지장적 영향을 미치고 조혼·아동노동·무장단체 동원 등 극심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어 식량위기는 곧 아동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월드비전은 식량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G20 정상들이 식량위기 대응에 있어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보호 접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유물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더 편안하고, 좀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영열 목사



여성사랑교회(담임 박영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2. 10.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영열 목사 수석장)
- 2007. 10. 3 이천교회원회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청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청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길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새바깥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사람에게 시간이란

사람들은 시간의 의미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말이 옳습니다. 늘 시간을 받고 시간을 약속하고 움직이는 표지를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시간으로 인하여 아이가 어른이 되고 젊은이가 노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다시 되돌아 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바다에서 살아야만 할 정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부자에게 한 시간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일을 그르쳐기도 합니다. '시간이 약아!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인생을 그 종점으로 이끌어가기기도 합니다.

시간을 말할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말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누구도 재빨리든 저속하여 나중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때를 가려다 쓰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대어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어 있지도 않으니 시간은 언제나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동일한 시간 안에서 열차 여행을 하는 것인데 그 열차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 카이로스(kairos)를 살아가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잠 10:49)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마음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곳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마음..
그 마음 가까이로
들어설수록 그곳에는 집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희미한 그림자가 이른 거리는 곳
마음으로 들어가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이고 하고 싶은 것을 가로 막아 갈등을
경험케 하는 전쟁터.. 그곳에는 집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만드신 비밀의 방 마음..
온 맘 다한 가난함으로 울만큼 울어야
 열어주시는 신비스런 마음의 문
마음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그 무언가가
분명한 모습되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뵈을 때
전쟁터인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고
심령은 물 대 댄 동산 되어 생생 샘 넘치니
파란 심령 안에 상쾌감을..
연약한 심령 안에 만족감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령의 근원이다"
분명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잠 4:23
내 마음에 새겨주신
생령의 말씀을 되새기게 한다.

사설

엄중한 때 먼저 정쟁을 멈추어야

공명방송이 앞장서고 민노총과 현 민주당이 손을 잡고 가세(加勢)하여 발인 촛불 집회. 그렇게도 비난하던 미국산 쇠고기들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던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최대 수입국이다. 지금은 경우병 같은 한소리로 세월호 같은 음모론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사실적 미국이나 국민적 참사를 지양분으로 삼아 사치로운 이익을 도모하거나, 내 자식 내 가족인데도 유족에게는 한 마디의 동요도 없이 자기를 만대로 명단을 공개하고, 자우라고 하자 확인하려고 하니 사진과 주민등록을 대대적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무리들, 무슨 권리로 남의 가족의 이름을 만대로 도용하면서 저우라고 하자 오히려 큰소리치는 무리들.

말 만들어 내기 좋아하는 정치인 등이 주축이 되어 민노총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소탕하고 사법부와 대통령과 술을 마시겠다고 거짓을 퍼뜨리는 단체. 국민들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밝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무리들이 발을 일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자(韓非子)의 대제편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서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 딱 맞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취모벽자(取毛壁子)는 단어와 취모구자(求毛龜子)는 단어다. 취모벽자라는 단어는 털을 붙여서 허물을 찾는다는 뜻이다. 허물을 찾으려고 털을 붙여 허물을 찾는다는 뜻이다. 즉, 약자로 적은 허물을 들추어 낼 때 사용하는 단어다. 반면에 취모구자(求毛龜子)는 털을 붙이면서 허물을 찾는다는 뜻은 같은데 사용처가 다르다. 이 말은 없는 허물을 찾으려고 털을 붙이면서 찾는다는 뜻이다. 즉, 벽자라는 말은 검거자인 흉터를 찾기 위해서 털을 붙이면서 허물을 찾는다는 뜻이고 구자라는 말은 허물이 없는데 털을 붙이면서 찾는다는 의미다. 약(弱)하기로 밀려나면 벽자보다는 구자(求)가 훨씬 사악(邪惡)한 일이다. 먹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구는 없는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찾는 것이기에 사악한 일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과 사회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벽자가 아니라 구자라는 느낌이 강하다. 정쟁적이라면 국익을 위해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과 영박인을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크기가기도 한 일이다. 순방 중인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비난과 비판을 하

려면 귀국 후에 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해로운 방향을 떠나자마자 비난과 비판과 억지 일색이다.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다. 소위 정치자리는 신부까지도 가세했다.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대표인 김규돈 신부는 순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온 국민이 염원하자고 했다. 박탈과 자주가 도를 넘은 것이다.

전용기가 떨어지면 사무치게 미워하는 대통령 내외만 죽는가? 수많은 수행원을 부총리, 수석 비서관들과 장관, 안보실장, 비서관들, 함께 취재자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각 언론사의 기자들, 그들은 전원 무사할 수 있는가? 전용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어라? 악랄에 죄의 지고 없고 할 수 없는 막대한 한 것이다. 성공회에서 쓰는 책략으로 그의 사제직을 박탈했다. 사제가 아니라 머리는 말이다.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돼 버렸나? 슬프기 그지없다.

사치로운 정쟁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도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 연방의 안전한 존재에도 국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반도 정세와 안보가 이처럼 엄중할 때 정치권이 어두운 정쟁으로 날이 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북한 한림북도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이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朝鮮社會主義)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지난 200여년 전 세계에서 65개에 달하는 나라가 사라졌다. 대부분이 이웃 국가에 의해 사라졌다. 특히 우리는 북한에 의해 최초의 코요타가 개미 한국전쟁이란 동족상잔의 최대 비극을 겪었다. 만약 을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다. 어떤 이유라도 국방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살자책임을 명심할 때이다.

이 엄중할 때 먼저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특히 국방에 있어서는 큰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쟁을 부르는 것은 적이 아니라 우리이다. 정쟁은 분명히 정쟁이다. '대부분은 사적은 반쪽에서 돌아서 있는 것 같은' 속임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비를 그칠 것이냐"(창 17:14)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 정재원장 조영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현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재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1회 실행위원회

일시 2023년 1월 6일(금)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031)443-3731~2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전임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반계로 참석여부를 12월 19일(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
총장

목사
장

목사
정

목사
진

목사
국